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3, 2015. 8, pp. 107-124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박 정 화
(서울여자대학교)
권 미 리
(서울여자대학교)
정 순 둘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연령통합, 고령사회, 패러다임, 사회일반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71)
+ 주저자・교신저자

1. 서론

개인의 생애기간동안 진입하고 퇴장해야 할 사회제도를 생의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열한 연령분절 패러다임이 고령사회에도 패러다임으로써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는 고령사회를 지탱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채근한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의 교육제도 퇴장과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확대되는 등 표준생애모델의 적용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연령분절적 패러다임이 도전받게 되었다.

연령분절 패러다임의 정합성에 대한 회의는 연령통합 패러다임의 부각이라는 반동으로 이어졌다. 연령통합 패러다임은 특정 제도와 역할로의 진출입이 연령에 준거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기초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사회를 지향한다(Riley, 1998).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고령사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유럽과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Riley, 1998; Belsky, 1999; Riley and Riley, 2000; Uhlenberg, 2000a).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대한 서구논의는 연령에 따라 역할을 배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위배임을 강조한다. 노동, 교육 등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연령에 준거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시민권적 관점에 기대어 연령통합의 정당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연령통합 패러다임이 연령분절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만능해법으로 읽히는 것 또한 경계한다. 연령통합 패러다임은 노인을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거나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을 모든 세대에 개방해야 하는 역설적 가능성 또한 배태하고 있음을 경고한다(Riley and Riley, 2000; Uhlenberg, 2000a).

다변적 생애구성의 확대와 고령사회에 조응하는 대안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연령통합이 사회정책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갖는 유용성은 크다. 그러나 연령통합에 대한 국내 접근은 담론수준의 논의마저 진공상태에 있다. 연령통합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소수의 연구(정경희, 2004; 김경호, 2005)와 노인복지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연령통합의 토착적 개념이 탐색된 정도이다.

한편,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탐색에서 관찰되는 오류 중 하나는 정책대상의 타자화이다. 사회적 위험 판단에 대한 지식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생성과 소비가 전문가 권력에 종속되었으며(홍성태 역, 2014), 사회일반은 이로부터 배제되었다.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 또한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사회일반은 정책개발을 위한 담론형성과 정책생산의 과정에서 제삼자로 위치지어졌다.

사회정책의 개발은 전문가가 주도하지만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일반의 사유는 정책조형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Gilbert와 Terrel(2002)의 선언처럼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일반의 사유를 정책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대상을 타자화하는 기술관료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이 지닌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은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칠 긍정적 영향 또는 연령통합이 구현된 사회에 기대되는 긍정

적 변화로 치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일반의 사유를 통해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야기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이 지닌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의 전개상 사회일반의 인식을 전문가의 인식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연령통합의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순차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집단별로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영향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연령통합의 영향 중 의미 있게 높거나 또는 낮은 기대를 보이는 하위차원이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전문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근거한 고령사회의 정책적 선택이 현실과 괴리되는 우려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고찰

1) 연령통합의 개념에 대한 논의

연령통합을 처음 소개한 Riley(1974)는 연령통합을 특정 사회제도로의 진입과 퇴장에 연령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한 집단 내에서 상호교류하는 세대 공존적 상태로 개념화한다. 연령통합은 연령이 사회제도 진출입의 구조적 장애로 조건화 되지 않는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다양한 연령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으로 구성된다(Riley et al., 1994).

연령유연성은 특정 사회제도로의 진입과 퇴거가 생애 전 시기에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규범과 연령장벽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연령유연성이 높을수록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감소한다. 한편 연령다양성은 사회집단 내에 다양한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Foner, 2000; Riley and Riley, 2000; Uhlenberg, 2000b).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충족된 연령통합적 사회는 생의 주기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에게 모든 유형의 사회제도적 활동이 개방되어 있는 이상적인 사회이다(정경희, 2004; Belsky, 1999).

국내연구에서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연령통합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연령에 의한 제한 및 장벽을 없애는 것', '개인이 자신의 전 연령에 걸쳐 교육, 일, 여가 등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 '세대간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증진하는 것', '연령에 따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으로 기술했다(정순둘 외, 2015).

국내 전문가들은 연령통합의 네 가지 개념적 요소 중 '연령에 의한 제한 및 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것', '연령에 따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 '개인이 자신의 전 연령에 걸쳐 교

육, 일, 여가 등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세대 간 상호작용과 교류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낮게 보고했다. 이는 국내 전문가는 연령통합을 연령이 사회구조의 진입과 퇴거에 엄격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연령유연성을 중심으로 개념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순둘 외, 2015).

2) 연령통합의 영향

(1) 국외연구

정책적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Riley와 Riley(2000)는 연령통합에 따른 연령유연성의 증가로 사회적 역할과 배열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조망했다.

연령다양성 차원에서 연령통합은 간세대적 상호이해를 높이고 세대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예견된다(Harwood et al., 2005). 가족내에서 연령다양성의 증가는 선세대와 후세대 사이의 자원교류를 촉진하고 세대간 자원재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낙관된다. Reitzes와 Mutran(2004)은 간세대적 교류 확대는 가족의 행복감을 높이고 노인의 지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세대와 삼세대 사이의 교류는 가족문화의 전승과 가족 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특권을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부정적 영향 또한 논의되었다. 연령장벽의 완화는 노년기 욕구에 기초해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사회적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Uhlenberg, 2000a). 연령을 준거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공적연금의 연령배타적 대상자 선별방식이 논리적 타당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즉 연령통합은 공적 연금의 수급권과 경제적 안정에서 노인에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연령유연성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연령문턱은 완화될 수 있으나 노동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은 노동시장 내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다(Uhlenberg, 2000a). 이와 같이 연령통합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사회적 특권의 축소와 노인 인력의 주변화 등 부정적 효과 또한 배태하고 있다.

(2) 국내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실증한 국내연구(최혜지 외, 2015)에서 연령통합은 노인의 삶의 질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상대적 고용율과 노인의 상대적 교육참여율로 지표화된 객관적 연령통합의 수준은 노인의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삶의 자율적 선택력과 사회와의 연결도로 지표화된 주관적 연령통합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증가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객관적 연령통합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검증했다(최혜지 외, 2015).

한편, 객관적 연령통합과 주관적 연령통합은 사회구성원의 건강상태,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

립,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객관적 연령통합과 주관적 연령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도 의미 있게 증가했다(최혜지 외, 2015). 이는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논의되었던 연령통합의 긍정적 영향을 실증하는 것으로 연령통합의 영향은 노인의 삶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최혜지 외, 2015).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순둘 외(2015)의 연구에서 수집한 이차자료의 분석과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상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연령통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이차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사용했다.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했다.

1) 전문가조사 이차자료

연령통합의 사회적, 개인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사유탐색을 목적으로 한 조사는 노인복지학 또는 노년학 연구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박사학위 소지, 3년 이상의 노인 관련분야 연구 또는 강의경력을 기준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출했다. 연령통합에 대한 논문을 출간한 세 명의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의사를 확인했으며, 이들로부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사대상자를 소개받았다. 55명의 전문가에게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3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델파이조사는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 10개 항목[1], 개인적 영향 4개 항목[2]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측정했다. 동의의 정도가 평균 3점 이하인 항목을 제외한 사회적 영향의 7개 항목, 개인적 영향의 4개 항목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질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31명 조사대상자의 성별구성은 남성이 19.35%, 여성이 61.29%, 연령대별 구성은 30대가 22.58%, 40대가 20.67%, 50대가 9.68%로 나타났다.

〈표 1〉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

구분		전문가	
		빈도(명)	백분율(%)
최종학력	학사졸업	-	-
	석사졸업	-	-
	박사졸업	31	100.00

1) 세부항목은 〈표 3〉 참조
2) 세부항목은 〈표 4〉 참조

구분		전문가	
		빈도(명)	백분율(%)
나이	30대	9	29.03
	40대	18	58.06
	50대	4	12.90
성별	남성	8	25.81
	여성	23	74.19

2) 사회조사

(1) 표집, 자료수집, 및 조사도구

사회조사 대상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7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8개 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이다. 거주지역, 연령, 성별을 준거로 층화한 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자료수집은 전문유급면접원이 대면면접으로 진행했다. 조사도구는 전문가 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했다.

(2) 조사대상자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남자가 50%, 여자가 5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분포는 20세에서 40세가 20.6%, 41세에서 60세가 38.4%, 61세 이상이 41.0%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총 년수는 13년 이상이 37.3%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10년에서 12년 사이가 35.6%를 차지했다. 혼인상태는 약 80%가 결혼 또는 동거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사별이 7.7%, 독신이 10.7%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0

변인	구분/속성	n	%
성별	남	500	50.0
	여	500	50.0
연령	40세 이하	206	20.6
	41~60세	384	38.4
	61세 이상	410	41.0
교육수준	6년 이하	116	11.6
	7~9년	155	15.5
	10~12년	356	35.6
	13년 이상	373	37.3
혼인상태	독신	107	10.7
	결혼 또는 동거	797	79.7
	별거 또는 이혼	19	1.9
	사별	77	7.7

3) 분석방법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t-test와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test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행했다. 둘째, 집단별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했다. 셋째. 집단별로 동의의 정도가 사회적 영향의 평균과 개인적 영향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거나 낮은 개별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행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집단소속이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이 개인적 영향의 인식에, 개인적 영향이 사회적 영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집단소속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4. 연구결과

1)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전문가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동의정도는 전문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전 하위차원에서 사회일반은 전문가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적 연대의 증진은 사회일반과 전문가 사이에 가장 큰 인식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통합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동맹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문가 집단 내에서만 공유 가능한 사유임을 드러낸다.

연령통합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일반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의 증가에 연령통합이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 연령통합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노인의 자립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차원은 사회일반이 전문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 동의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3〉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

항목		평균(SD)	t	p
사회적 연대의 증진	사회일반	2.96(0.78)	-10.82***	0.00
	전문가	4.51(0.72)		
세대간 이해 증진	사회일반	2.92(0.90)	-8.88***	0.00
	전문가	4.38(0.61)		
노인 차별의 감소	사회일반	2.95(0.75)	-6.33***	0.00
	전문가	4.12(1.02)		
세대간 부양의 상호 호혜성 증진	사회일반	2.96(0.82)	-7.08***	0.00
	전문가	4.03(0.87)		
노인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증가	사회일반	3.15(0.87)	-5.88***	0.00
	전문가	3.93(0.72)		
세대간 사회보장에서 불평등 감소	사회일반	2.96(0.74)	-6.82***	0.00
	전문가	3.90(0.8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증진	사회일반	3.25(0.73)	-1.83*	0.07
	전문가	3.64(1.17)		
총합	사회일반	21.17(3.75)	-11.20***	0.00
	전문가	28.54(3.60)		

* p<.05, ** p<.01, *** p<.001

〈표 4〉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

항목		평균(SD)	t	p
사회참여기회의 증가	사회일반	3.18(0.70)	-9.23***	0.00
	전문가	4.40(0.77)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사회일반	3.56(0.71)	-3.10**	0.004
	전문가	4.16(1.05)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사회일반	3.66(0.76)	-0.18	0.85
	전문가	3.70(1.05)		
자립 가능성 증가	사회일반	3.53(0.77)	-0.93	0.35
	전문가	3.66(0.71)		
총합	사회일반	13.94(2.05)	-3.81***	0.001
	전문가	15.93(2.82)		

* p<.05, ** p<.01, *** p<.001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각 집단별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동의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문가가 인식하는 연령통합의 영향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으로 인한 변화를 주로 개인의 일상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연령통합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시적 변화로까지 사유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집단별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 간 인식의 차이

항목		평균(SD)	t	p
사회일반	사회영향	3.02(0.53)	-26.16***	0.00
	개인영향	3.48(0.51)		
전문가	사회영향	4.01(0.51)	0.94	0.35
	개인영향	3.98(0.70)		

* p<.05, ** p<.01, *** p<.001

사회적 영향의 하위차원들 사이에 의미 있는 인식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의 개별 하위차원을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과 비교해 그 유의미성을 검증했다. 사회일반은 세대간 이해의 증진, 노인차별의 감소, 세대간 사회보장의 불평등 해소, 사회적 연대의 증진, 세대간 부양의 상호 호혜성 증가에 동의하는 정도가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일반의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영향 전체 평균과 하위차원간 인식의 차이

항목		평균(SD)	t	p
사회적 영향 평균(sd) 3.02 (0.53)	사회적 연대의 증진	2.96(0.78)	-3.72***	0.00
	세대간 이해 증진	2.92(0.90)	-4.77***	0.00
	노인 차별의 감소	2.95(0.75)	-4.13***	0.00
	세대간 부양의 상호 호혜성 증진	2.96(0.82)	-2.86**	0.004
	노인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증가	3.15(0.87)	5.18***	0.00
	세대간 사회보장에서 불평등 감소	2.96(0.74)	-3.38***	0.001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증진	3.25(0.73)	13.85***	0.00
개인적 영향 평균(sd) 3.48 (0.51)	사회참여기회의 증가	3.18(0.70)	-15.38***	0.00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3.56(0.71)	5.03***	0.00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3.66(0.76)	11.14***	0.00
	자립 가능성 증가	3.53(0.77)	2.99***	0.00

* p<.05, ** p<.01, *** p<.001

반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이 증가하거나 노인의 사회적 기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는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일반의 경우 연령통합이 세대간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긍정적 사회변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며 오히려 환경변화와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영향의 하위차원별 인식을 살펴보면, 사회일반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의 증가, 자립 가능성의 증가의 순으로 연령통합이 노인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변화가능성은 오히려 개인적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 증진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야기할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은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참여기회의 증가를 개인적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나 노인의 자립 가능성 증가는 개인적 영향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해 연령통합이 이와 같은 변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 전문가의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영향 전체 평균과 하위차원간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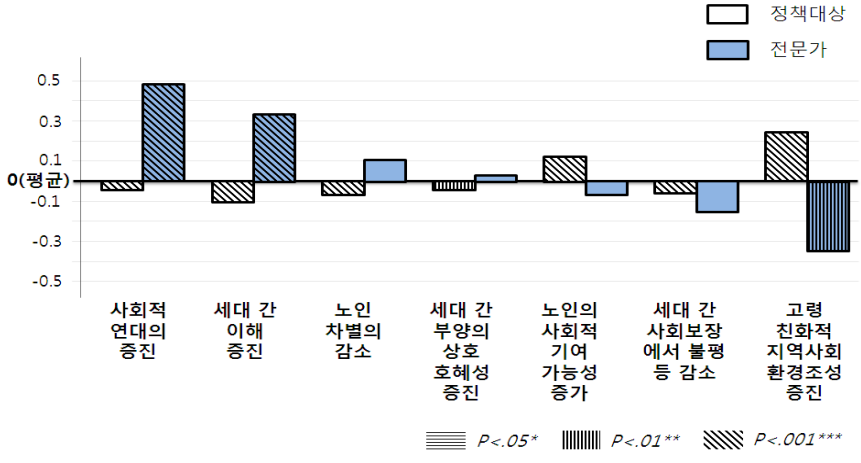
	항목	평균(SD)	t	p
사회적 영향 평균(sd) 4.01 (0.51)	사회적 연대의 증진	4.51(0.72)	5.02***	0.00
	세대간 이해 증진	4.38(0.61)	3.83***	0.001
	노인 차별의 감소	4.12(1.02)	0.31	0.75
	세대간 부야의 상호 호혜성 증진	4.03(0.87)	-0.36	0.17
	노인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증가	3.93(0.72)	-1.05	0.29
	세대간 사회보장에서 불평등 감소	3.90(0.83)	-1.39	0.17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증진	3.64(1.17)	-2.94**	0.006
개인적 영향 평균(sd) 3.98 (0.70)	사회참여기회의 증가	4.40(0.77)	4.03***	0.00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4.16(1.05)	1.75	0.09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3.70(1.05)	-2.9 3**	0.006
	자립 가능성 증가	3.66(0.71)	-2.75**	0.01

* p〈.05, ** p〈.01, *** p〈.001

〈그림 1〉은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각 하위차원별 사회적 영향의 높고 낮음을 집단별로 그래프화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거나 낮은 하위차원이 사회일반과 전문가 집단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사회일반은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한 사회적 연대의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사회일반은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증진을 전문가는 오히려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해 연령통합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조성을 촉진할 것임을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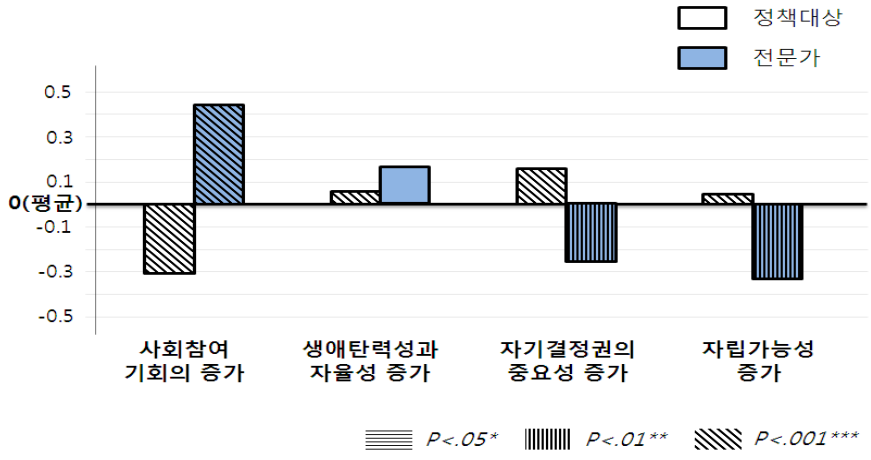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야기할 영향을 일상에서 체험 가능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단순화 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전문가는 연령통합을 연령유연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호의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대의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연대 증진이나 세대간 이해의 증진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과 하위차원별 차이에 대한 집단 비교

연령통합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일반과 전문가 사이에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사회일반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증가를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는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확대에 사회일반은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전문가는 평균보다 낮게 평가했다. 노인의 자립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 또한 사회일반은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전문가는 자립가능성의 증가를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

이들 결과 또한 사회일반은 자기결정권의 증가, 자율성의 증가 등 노인 개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차원을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긍정적 변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회참여의 증가와 같이 노인 개인의 의지를 벗어나 사회가 노인에게 호의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가능할 수 있는 변화는 연령통합으로 인해 유도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개인적 영향의 전체 평균과 하위차원별 차이에 대한 집단 비교

2) 사회일반의 집단소속이 연령통합 영향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

연령통합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인식에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집단소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일반라는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동일한 조건 하에 전문가 보다 연령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7.72 낮게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설명변인으로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개인적 인식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 변수가 투입되자 집단소속이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사라졌다. 성별, 연령, 교육기간,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령과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야기할 영향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령통합이 생애 자율성과 자립성 증가 등 노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연령통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일어날 긍정적 변화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소속이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b	β	se	t	b	β	se	t
(상수)	24.18		0.92	26.32***	12.83		1.10	11.63***
남성+	0.08	0.01	0.24	0.31	0.14	0.02	0.21	0.67
연령	-0.04	-0.16	0.01	-4.23***	-0.04	-0.14	0.01	-4.05***
교육	-0.07	-0.07	0.04	-1.59	-0.07	-0.07	0.04	-1.78
사회일반++	-7.72	-0.33	0.80	-9.60***	-4.07	-0.17	3.66	-1.11
개인영향					0.77	0.41	0.07	11.57***
개인*집단					0.07	0.09	0.13	0.58
F(df) R^2	34.32(4) 0.12				69.32(6) 0.29			

*p〈.05 **p〈.01 ***p〈.001

+ 남성=1 여성=0
++ 사회일반=1, 전문가=0

연령통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사회일반의 집단소속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일반은 전문가 보다 연령통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1.88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인식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이 투입된 상태에서도 사회일반의 집단소속이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갖는 유의미한 영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영향력의 방향이 바뀌어 성별, 연령, 교육기간,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회일반이 전문가보다 연령통합이 개인의 삶에 야기할 영향을 9.36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연령통합이 사회연대 강화 등 사회적 차원에서 일으킬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 연령통합이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 또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과 집단소속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이의 영향관계가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 등 집단소속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한다.

〈표 9〉 집단소속이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b	β	se	t	b	β	se	t
(상수)	14.38		0.51	28.00***	8.53		0.59	14.34***
남성+	-0.09	-0.02	0.13	-0.68	-0.10	-0.02	0.12	-0.85
연령	-0.01	-0.05	0.01	-1.34	0.00	0.02	0.01	0.63
교육	0.00	0.00	0.02	0.05	0.02	0.04	0.02	0.91
사회일반++	-1.88	-0.15	0.46	-4.13***	9.36	0.75	2.75	3.40**
사회영향					0.21	0.40	0.02	11.61***
사회*집단					0.18	0.77	0.05	3.43**
F(df) R^2	7.49(4) 0.03				50.79(6) 0.23			

*p〈.05 **p〈.01 ***p〈.001

+ 남성=1 여성=0
++ 사회일반=1, 전문가=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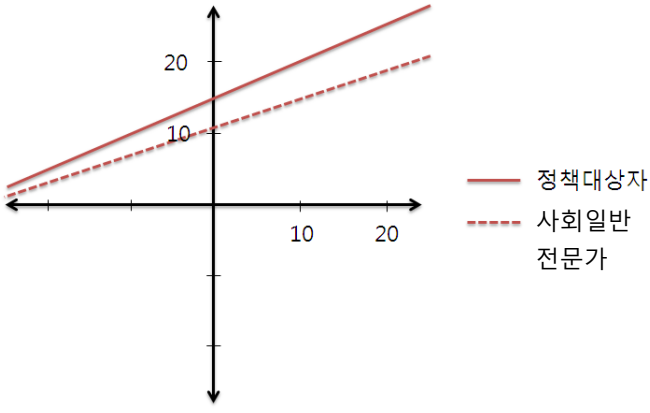
사회일반과 전문가 모두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영향력의 크기가 사회일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더욱 민감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사회적 영향이 개인적 영향에 미치는 집단별 효과

	사회일반				전문가			
	b	β	se	t	b	β	se	t
(상수)	15.07		9.87	1.53	8.46		0.60	14.19***
남성+	-1.88	-0.30	0.75	-2.51*	-0.07	-0.02	0.12	-0.54
연령	-0.05	-0.10	0.06	-0.80	0.01	0.03	0.01	0.73
교육	-0.44	-0.16	0.38	-1.16	0.02	0.04	0.02	0.98
사회영향	0.48	0.62	0.10	4.74***	0.24	0.44	0.02	15.25***
F(df) R^2	11.79(4) 0.65				58.98(4) 0.19			

*p〈.05 **p〈.01 ***p〈.001

+ 남성=1 여성=0



〈그림 3〉 집단소속과 사회적 영향의 상호작용 효과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는 연령통합의 사회적, 개인적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증진, 노인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증가, 세대간 부양의 상호호혜성 증가 순으로 높게 평가해,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생산적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세대간 이해의 증진, 노인 차별의 감소, 사회적 연대의 증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 연령통합에 따른 연령 계층간 상호작용의 확대가 세대간 또는 연령계층간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가가 연령통합을 연령유연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일반은 연령유연성의 측면을 연령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은 사회적 영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전문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연령통합이 사회적으로 야기할 영향을 사회일반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연대의 증가는 사회적 영향의 하위차원 중 사회일반과 전문가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의 경우 연령통합이 구성원 사이의 상호책임과 결속의 증가라는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사회일반의 사유는 연령장벽의 완화와 연령다양성 증가가 사회의 본질적 변화로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특히 노년세대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열정으로 대변되는 세대간 상호작용이 호혜적인 사회화(reciprocal socialization)를 확대할 것이라는 Riley(1974)의 사유가 사회일반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네 개의 하위차원 중 '사회참여의 기회증가', '생애 자율성 증가'의 두 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집단차이가 관찰되었다. 두 개 차원 모두 사회일반의 인식이 전문가 보다 낮았으

며, '사회참여의 기회증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통합을 연령장벽이 부재한 유연한 사회로 규정한 전문가의 인식이 사회일반의 인식과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별로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인식했다. 반면 전문가의 인식은 연령통합이 야기할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 영향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통합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제한적인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영향을 경험에 기초한 개인의 삶에서 유추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사회적 결과와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과 비교한 사회적 영향의 하위차원별 인식에서 사회일반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영역의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영향의 전체 평균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사회일반의 경우, 사회적 영향의 여타 하위차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결과임에 반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은 상상적 가시화가 가능한 구체적 결과이며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사회일반 혹은 전문가라는 집단소속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일반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적 영향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으로 인한 변화를 주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과 집단소속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인적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영향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효과가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영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일반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일반의 경우 상호독립적일 수 있는 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주목되는 대안적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연령통합에 대해 탐색적이나마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연령통합에 대한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가는 물론 정책구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일반의 인식을 기반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개인적 영향 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외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결과 일반화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문가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일반은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기 모두 대표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크다.

참고문헌

김경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553-582.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7: 11-26.

정순둘・기지혜・최혜지, 2015,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68: 161-186.

최혜지・전혜상・정순둘, 2015,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 『사회복지정책』, 42(2): 343-364.

홍성태 역, 2014,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서울: 새물결.

Belsky, J., 1999, *The Psychology of Ag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3rd ed)*, CA: Brooks/Cole Publishers.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272-276.

Gilbert, N., and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A: Allyn and Bacon.

Harwood, J., Hewstone, M., Paolini, S., and Voci, A., 2005, “Grandparent-grandchild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93-406.

Reitzes, D. C., and Mutran, E. J., 2004, “Grandparent identity, intergenerational family identity, and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4): 213-219.

Riley, M. W., 1974. “The perspective of age stratification”, *The School Review*, 83(1): 85-91.

Riley, M. W., Kahn, L. R., and Foner, A.,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Y: Wiley.

Riley, M. W., 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NY: Syracuse University.

Riley, M. W., and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Uhlenberg, P., 2000a, “Integration of old and young”, *The Gerontologist*, 40(3): 276-279.

Uhlenberg, P., 2000b,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Study on Potentiality of Age Integra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Aged Society

- Focusing on Comparing Perception Regarding Impacts of Age Integration Between Policy Target and Professional -

Choi, Hyeji
(Seoul Women's University)
Park, Junghwa
(Seoul Women's University)
Kwon, Miri
(Seoul Women's University)
Chung, Soondool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ideas on lack of discussion regarding age integration emphasized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aged society and exclusion of policy target from discussion on age integration. This study analyzed potentiality of age integration through comparing the perception on impacts of age integration between policy target and professional. Results showed that policy target perceived social and individual effects of age integration more sceptically than professional. Also, policy target reported higher levels of agreement on development of age friendly environment and increase in social contribution by the aged as social impacts of age integration. Otherwise policy target, professional showed higher levels of agreement on enhancement of social solidarity and increase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generations. In perception on individual impacts of age integration, policy target differed from professional by emphasizing extension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autonomy. Lastly, group membership of policy target or professional significantly determined levels of agreement on positive impacts of age integration.

Key words : age integration, aged society, paradigm, policy target

〔논문 접수일 : 15. 04. 03, 심사일 : 15. 05. 29, 게재 확정일 : 15. 07. 26〕